

무등산 약수 모두 못마신다

너덜정·동화사 등 약수터 13곳 대장균군 오염

7 광주일보
제17576호 2006년 10월 16일 월요일

섬진강 연어 '모천회귀' 채란용 7마리 올챙이 포획



올해 들어 처음으로, 섬진강에 방류했던 연어가 포획됐다. <사진>

전남도 해양바이오연구원 내수면시험장은 15일 "올해 들어 처음으로 섬진강에 돌아온 연어를 지난해 보다 1주일가량 빠른 지난 11월 7마리(암컷 5, 수컷 2)를 포획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포획된 연어는 광양시 다압면 죽천리 일대에 그물을 설치해 잡은 것이다. 불잡힌 연어는 북대평양 일대에서 3~5년 동안 서식하다 자신이 태어난 모천에서 산란하기 위해 돌아온 것으로, 오는 2007년 연어자원 방류를 위한 채란용으로 활용된다.

내수면시험장은 어린 연어 방류를 통한 생태계 복원 및 관광자원화를 위해 매년 10월께 모천으로 회귀하는 어미 연어를 포획, 인공 채란 과정을 거쳐 부화시킨 뒤 4~5개월간 키워 다음해 3월께 방류해 오고 있다. 지난 1998년부터 지금까지 섬진강에 375만 마리, 탐진강에 43만 마리를 방류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시중유통 일부 한약 중금속 검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일부 한약에서 수은과 납 등 중금속이 대량 검출되고, 일부 한약에서는 코카인이 나왔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고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이 15일 주장했다.

정 의원이 이날 공개한 의약품 공인시험기관 랩프린터와 인하대의 한약성분 분석결과에 따르면 전국 264곳의 한의원에서 제조한 한약 가운데 76곳에서 처방한 한약에서 신경계통에 치명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은 등이 대량 검출됐다.

랩프린터 조사에서는 123곳 중 21곳에서 은과 납 등 맹독성 성분이, 인하대 조사에서는 146곳 가운데 55곳에서 제조한 한약에서 코카인과 살충제 등의 부적절 성분이 각각 검출됐다고 정 의원은 설명했다.

/연합뉴스



“마시지 마세요” 9월 수질검사 결과 음용 불가 판정을 받은 무등산 너덜정 약수터에서 15일 갈증을 참지 못한 등산객들이 목을 축이고 있다. 무등산 자락 13개 약수는 이번 검사에서 모두 총대장균군이 검출됐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광주시 '비엔날레 사무국장 승진 철회' 패소

“시장 재량권 남용” 판결

공무원 승진에 있어 심사단계를 모두 통과하게 됐다면 비위 및 공무원 품행훼손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승진을 취소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부(부장관사 선재성)는 13일 광주시청 공무원 정모(58)씨가 광주시장을 상대로 낸 '부작위 위법확인소송'에서 “피고는 부이사관 승진임용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사위원회 심사를 모두 통과한 정씨가 특별한 비위 행위를 저지르거나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않았음에도 광주시장이 정씨를

지방부이사관에 임명하지 않은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행위”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인사위원회 의결과 외부 공표, 국가공무원(4급)에서 지방공무원(3급)으로의 전출 등의 등 관련 절차를 모두 거친 뒤 정씨가 비엔날레 제단 사무국장으로 발령났음에도, 업무상 의견 불일치 등을 이유로 직위를 해제하고 승진 임용마저 거부한 것은 광주시장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가 여러 절차를 거쳐 원고를 승진 임용하겠다는 자기구속적 약속, 즉 행정상 약속을 해놓고도 공익을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비위나 위법

행위도 없이 원고에 대한 승진 임용을 철회한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지난 2004년 광주시가 지방부이사관이나 승진예정자로 통상 임명하는 광주비엔날레 사무국장으로 임명됐으나 비엔날레 재단과의 마찰로 사무국장에서 직위해제됐다.

지하수마저 오염 심각

광주시는 15일 “지난 9월 말 무등산 자락 약수터 13곳의 수질을 검사한 결과 모든 약수에서 총대장균군이 검출되고, 특히 청풍령터 약수에선 분원성(糞原性) 대장균군이 함께 나왔다”며 “이들 부적합 약수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고 음용을 금지하는 경고판을 부착했다”고 밝혔다.

◇'100대 약수'는 옛말=무등산 약수는 지난 7월 수질검사에도 전부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8월엔 한 곳을 제외한 모든 약수에서 대장균군 등이 검출됐다. 지난 6월엔 77%인 10곳에서 총대장균과 분(糞) 성분, 여시니아균 등이 검출됐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약수터는 평두메·교막재·늦재·덕산샘·동화사·옛 중심사 약수터·너덜정·중머리재·산장광장·청풍령터 등이다.

앞서 지난해 7·8·9월 수질조사에서도 대부분의 무등산 자락 약수터가 사용불가 판정을 받았다. 지난 해 10~12월 검사에서도 교막재·너덜정·중머리재·청풍령터·중장사 등 5곳이 음용불가 판정을 받았다.

이용객(하루 1천500여 명)이 가장 많고 한국의 100대 약수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너덜정 약수는 겨울에도 '깨끗하지 못한 물'로 전락했다.

광주시는 약수 오염이 심한 이유에 대해 ▲대부분의 약수가 표층수인데 ▲동물들의 배설물이 섞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구 중심사관리소·산장광장·청풍령터·중장사 등 4곳은 지하수인데도 오염이 계속돼 이 같은 원인 분석이 설득력을 잃고 있다.

광주시는 여름철에는 매 달 무등산 약수의 수질검사를 하는 등 연 10여회 미생물 등 38개 항목에 대해 검사하고 있다. ◇대책 마련 부심=광주시는 ▲각 약수터의 저류조 보수 ▲철조망 설치 ▲살균기 설치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우선 너덜정 약수 등 9개 표층수의 저류조를 보수하고 주변에 철조망을 치고, 산장광장 등 지하수 4곳엔 자외선 또는 오존을 이용한 살균기를 설치해 소독하겠다는 구상이다.

광주시, 살균기 설치 검토

하지만 이 경우에도 총장사 약수는 타도가 심해 폐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저류조 보수 정도의 조치로 9개 표층수의 수질이 나아질 것이라는 보장이 없는 상황이다.

광주시는 개보수 후에도 수질이 좋아지지 않으면 폐쇄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시는 2년간 80% 이상 음용할 수 없으면 폐쇄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정기자 jnews@kwangju.co.kr

야식집에 불 모녀 숨겨

장흥경찰, 원인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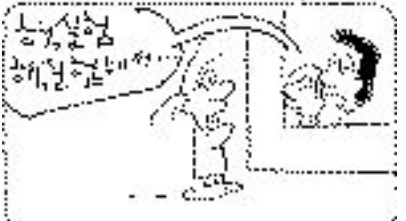
지난 14일 낮 12시10분께 장흥군 관산읍 남송리 G야식집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어머니 최모(여·36)씨와 딸(4)이 숨졌다.

경찰은 사고 당일 가게 문이 잠겨 있었고, 외부 침입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미뤄 방화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국과수에 현장검증과 사체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주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정홍=김용기기자 kykim@kwangju.co.kr

나원침 (6950) 김철두



'유노윤호 본드 음료 테러' 범인 자수



○서울 영등포경찰은 15일 그물동방신기 리더인 광주출신 유노윤호(20·사진)에게 '본드 음료수 테러'를 가했다고 고모(여·20·전세대 휴학생)씨가 자수해움에 따라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

○고씨는 지난 14일 밤 10시에 서울 여의도 KBS빌딩에서 오락프로그램 '여걸스의' 녹화를 마치고 대기실로 들어가던 유노윤호에게 본드로 추정되는 물질이 들어 있는 음료수를 건넨 혐의.

○고씨는 "인터넷 사이트를 보니 음료수 테러에 관한 글로 도배돼 불안했다"고 자수 이유를 설명.

/연합뉴스

www.홍스페이스.kr 이대리가구 전문점

- ▶ 신상인테리어 인테리어 디자인 (신상인테리어) (신상인테리어) (신상인테리어) (신상인테리어) (신상인테리어)
- ▶ 홍스페이스는 (신상인테리어) (신상인테리어) (신상인테리어) (신상인테리어) (신상인테리어)
- ▶ 1. 3명: 50% 할인 2. 4명: 50% 할인 3. 5명: 50% 할인 4. 6명: 50% 할인

홍스페이스 (신상인테리어) (신상인테리어) (신상인테리어) (신상인테리어) (신상인테리어)

광주지역 유일한 상설 할인매장

Discount 50% ~ 40%

최대 50% 할인

OLZEN

1. 02-671-6102